

낙산사, 해마 극복의 현장을 가다

그침없는 목탁소리... '복원 의지' 가득



낙산사 원통보전 앞 7층석탑이 '출입금지' 팻말과 경계선 속에 갇혀 있다. 스님과 불자들이 탑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박익순 기자



범어사 승가대 학인스님 30여명이 4월 12일 낙산사를 찾아 복구와 도량정비작업에 동참했다. 사진제공=범어사

한국전쟁 이후 초유의 참화를 겪은 지 9일이 지난 4월 14일 낙산사를 찾았다. '무료인장'이라는 표지가 세워져 있는 흉에 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서니 어지럽게 날려 있던 타버린 건물과 집기 잔해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언뜻 보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다. 연인원 4700여명(14일 현재)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결과였다. 경내 곳곳에 걸려있는 '낙산사 화재에 아픔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현수막이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산불로 단재여행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고, 방문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낙산사를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힘들 때 의지처가 돼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한국전쟁의 포화로 이겨냈다는, 견재한 사천왕문을 지나 낙산사 중심부로 들어서자 인근 군부대에서 세워준 군용막사 3동이 반긴다. 여기서 낙산사 신도회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기와불사를 접수받고 있다.

동종이 녹아내렸던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1968년 보물지정 당시 세워진 표지석을 옮겨놓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닐테이프를 둘러쳐 접근을 차단해 잔해가 아직 그대로 있는 원통보전 터에는 인등용 등잔이 나뉘었고 있었고 그 앞에 7층 석탑만 외로이 남아 옛 낙산사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한다. 검게 그을린 나무를 사 이로 보이는 하얀 해수관음상은 안쓰럽기만 하다.

춘천에서 달려왔다는 양재수씨는 "늘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흐뭇했는데, 이

"업장 먼저 녹이자" 24시간 참회기도

화재잔해 대부분 치워... 9일간 4700여명 봉사

같은 참화를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갑자기 경내가 소란스럽다. 수화여행은 고등학교생들이다.

"불씨 하나 잘못 버려 발생한 산불로 우리는 원통보전과 동종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잃고 말았어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지 알겠죠?"

보물 제479호 동종이 걸려 있던 종각 터기단 위에 올라선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소리친다. 낙산사는 어느새 '산불 체험학습장'이 돼가고 있는가?

수화여행단을 이끌고 낙산사를 찾은 서울 대동정보산업고 급홍섭 교관은 "화재 현장으로 수화여행 온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교육 효과가 크다고 여행을 권장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산불의 위험성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낙산사는 불탄 모습으로도 증생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학생들이 관음보살께 청법하는 문수동자 같았다.

사찰이 안정을 찾으면서 작은 공사들도 이뤄지고 있다. 의상교육관 2층에서는 불단조성 공사가, 흥련암 법당 옆에서는 요사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 불단이 완공되면 의상교육관 지하에 있는 견철관

음보살좌상(보물 제362호)은 2층으로 모시게 된다.

화마를 이겨낸 흥련암. 화재 다음날부터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지번 같은 산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으로 탐미업은 결과라는 자성에서 참회 기도가 시작됐다. 기도는 5명의 스님이 2시간씩 교대로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동참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도는 계속된다. 해조음(海潮音)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정근 소리에 금방이라도 무명이 견고하고 깨침의 문이 열릴 것만 같다. 업장을 녹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참회기도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종 잔해 공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로 옮겨진 낙산사 동종 잔해가 4월 11일 공개됐다. 동종 잔해는 화재당시의 고열에 녹아내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구소 측은 이 잔해를 성분분석하고, 구리와 주석 등의 합금비율을 밝혀내 동종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한국의 범종(국립문화재연구소)>과 <낙산사 동종의 안전

말모 낙산사 복원의 가장 분명한 중심축이 아닐까?

본격적인 복원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재 당일 모든 소실전각과 동종을 국고지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각으로 국한할 것임을 밝히더니, 급기야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대상을 대폭 좁히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규모에 대한 평가도 문화재청은 3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사찰측의 300억이나 양양군의 93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문화재청의 복원의지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은 "원통보전만큼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복원하고, 낙산사 산립 또한 국민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마음의 동산으로 일구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15일 인근 산불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했다.

양양 낙산사=박익순 기자



지난 5일 화재로 녹아버린 낙산사 동종잔해.

진단 보고서(서울대 정밀기계연구소)의 실측도면과 탁본본안이 남아있어 복구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피해 후속대책 강구

대책위, 피해액 산정·범국민 모금활동 전개

등달기·나무심기 전개

양양 고성 및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양양·고성 낙산사 산불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내 ▲복원지원팀(팀장 문화부장) ▲대정부 협의팀(팀장 기획실장) ▲성금모금팀(팀장 사회국장) ▲복구지원팀(팀장 총무부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낙산사 피해액 산정 및 향후 복원계획과 일정 수립을, 대정부협의팀은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과 낙산사 복원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항을 담당한다. 종단 차원의 범국민 산불피해 복구 모금활동은 성금모금팀이, 낙산사 복원과 관련한 종단 차원의 각종 행정적 지원은 복구지원팀이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또 이재민 및 낙산사 복원 불사를 위해 전 종도 및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사회부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낙산사 복원 동참 특별 불전함 설치 운영 ▲1인 1기와 불사 동참하기 ▲낙산사 복원을 위한 등달기 ▲1인 한 그루 나무 심기 등을 제안했다.

대책위원회는 모금활동 외에도 전 종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현장 탐방을 통한 신앙심 및 애증심을 고취하기 위해 낙산사 성지순례 및 원만 복원 기원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화재 등으로 건축물이 전소될 경우를 대비해 주요 건축물

일체조사를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총무원 부실장, 중앙총회 수석부위원장·재정분과위원장·사회분과위원장, 중앙신도회장·신흥사 신도회장 등 신도단체 임원진, 신흥사 주지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전국서 복원 동참 열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불기 2549년 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양양·고성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낙산사가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성스럽게 여기는 관음성지의 위의를 다시금 온전히 갖추는 일에 앞장서 동참한다. 향후 중요한 문화유산이 화마와 같은 재해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법·월정사 주지)는 이재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자비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불교연합회는 4월 12일 춘천시청 앞에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으며, 21일 영서지역, 22일 영동지역에서도 불행할 예정이다. 또 사찰별도 모금함 설치 및 모금법회 개최, 피해지역 및 사찰 현장 자원봉사 시행, 구호품 전달 및 위문 방문 등의 지원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도 4월 12-13일 강원 학인스님 30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낙산사에 파견, 복구와 도량 정비에 힘을 보탤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서산 용현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난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던 고려 중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지난 3월 19-20일 사이에 도난당했다. 이 좌상은 높이 93cm 넓이 40cm 두께 15cm 크기로 문화재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난당한 서산 용현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난당한 범종 스님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일제시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우리원판목록 200194호에 등재돼 보원사지 사적 316호로 보호받아온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불교문화재"라며 "시급히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080-290-8000서산경찰서 수사과 041-669-4112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봉 **추**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제7대 총무원장 영공대산 취임

종 정 월공벽암

부 종 정 엄혜우

총무원장 영공대산

총회의장 하청암

총무부장 김지현	포교원장 정영산	서울북부총무원장 조명각
교무부장 김대운	포교부장 김고산	중부총무원장 김성도
재무부장 이천인	감찰원장 김효월	강서총무원장 이법진
사회부장 이대현	교육부장 김진표	인천총무원장 최해원
문화부장 이지법	연수부장 이효명	경기북부총무원장 도광
법인원장 권성우		강원총무원장 허금성
기획부장 노승희		경남서부총무원장 서일광
감사부장 허지철		경남동부총무원장 김신진
		전남총무원장 이혜광
		대전총무원장 이대일
		부산총무원장 나석진

(재)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1-나동 / TEL 02)2242-1049

인사말씀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포교원장이시고 법성사 주지이신 덕오당 법성대법사의 영결식을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법성사에서 엄숙히 봉행 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증정예허를 비롯한 원로 큰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예를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러워하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기 2549년 4월 6일 (음 2월 2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성대법사 장의위원장 **이흥파**
덕오당 법성대법사 문중대표 홍법영 법성사 신도일동
전화 (055)521-1925, 2488